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획기적 진전”

文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표안’ 등 법률공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일부개정령안 의결  
감염병 대응체계 역량 발전할 것

의·정협의체 통해 의료계와 소통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최선 당부”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앞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당장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 기구’라고 정의한 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 연구, 백신 개

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한 보건 차관 역할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사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을 두고 새 보건 차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 차관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국민통합·책임정당 ‘국민의힘’ 거듭날 것”

국민의힘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변영·안전 보장 외교·안보 지킬 것  
이낙연 ‘원원원 정치’ 의미있는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쇄신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새 정강·정책을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을 보호하고 나라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등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 행복한 양성 평등사회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며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 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두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정부·여당에 향해 정책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 여부 결정 ▲국회 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내 의료체계 개편안 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탈 탄소 대책’ 수립 ▲부채 증가율 관리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최영훈 기자

## 농식품부, 2020년산 공공비축미 등 35만톤 수매

포대벼 24만톤, 산물벼 10만톤  
아세안+3비상 쌀비축미 1만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1만톤을 오는 14일~12월31일까지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24만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10만톤을 매입한다. 매입시기는 산물벼는 9월14일~11월20일까지, 포대벼는 10월12일~12월31일까지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10개국 원조를 위한 ‘아세안+3비상 쌀비축미(APTERR)’ 1만톤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까지 10일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이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 산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조곡 기준 6만5750원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또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 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유기농업의 날(6월2일)에 군 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된다.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한용수 기자 hys@

## 농진청 개발품종 ‘신화’ 배 500톤 유통

배 크기 상관없이 ‘맛 균일’ 장점

농촌진흥청은 제철을 맞은 우리 배 ‘신화’ 품종이 10일부터 약 500톤 가량 농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고 8일 밝혔다.

신화는 국내 배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추석용 배 품종이다.

겉모습과 색은 신고와 비슷하지만, 크기 630g, 당도 13브릭스(° Bx)로 신고(579g, 12.3브릭스)보다 크고 더 달다.

실제 소비자 평가에서 신화는 신고보다 모양과 당도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배 크기에 상관없이 맛이 균일하게 장점이다.

또 실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장력이 우수하며, 냉장 보

관하면 배 고유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화 배는 경기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시군, 약 88.2헥타르에서 재배 중이다.

신고보다 익는 시기가 15일 이상 빨라 추석 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국산 품종 중 보급 속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재배단지인 경기도 안성에서는 2018년 신화를 처음 출하한 뒤 우수성을 인정해 올해 13.6톤을 미국에 첫 수출할 계획이다.

배는 기관지 장애 개선 효과와 함께 해독 기능이 뛰어나며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체중 조절에 유용하다. 국산 배 출하 시기는 9월 중순 신화를 시작으로 9월 하순 화산, 만풍배, 10월 중순에는 추황배가 출하된다.

/한용수 기자

## 농진청 내년 예산

6.1% 늘어 1조877억

농촌진흥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1조249억원)보다 628억원(6.1% ↑) 많은 1조8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 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에 초점을 뒀다. 또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신규·중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보급(2733억원, 22.5% ↑),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원, 49.9% ↑),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R&D) 강화(1079억 원, 48.2% ↑)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한용수 기자